

지역 대표 공공의료 중심 종합병원



진료과 안내 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안과 / 비뇨기과 /
치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응급의학과

특성화센터 건강검진센터 / 인공신장센터 / 트라우마센터

진 료 시 간 평일 오전 8:30 ~ 오후 5:30 (응급실 24시간 접수 및 진료)

대 표 전 화 통합콜센터 032-580-60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1위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신경과과장 차정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에 손상이 오고,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의 동맥경화나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와서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반면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뇌졸중은 빠른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증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어야 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마비, 언어장애, 평소보다 극심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환자에게 갑작스레 우황청심환을 먹이거나 침을 놓거나, 손을 따는 등의 민간요법은 뇌졸중 치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뇌

졸중이 발생했다면, 즉시 11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초기에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발병 후 ‘4.5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 크게 호전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출혈 위험성이 증가하여 혈전용해술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병원에도착하도록 해야합니다. 혈전용해술이 성공한 경우,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4.4년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뇌경색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뇌졸중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편마비와 같은 후유장애 뿐 아니라 폐렴, 욕창 등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기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통해서 뇌손상이 회복될 수는 없지만, 신체의 기능은 상당히 호전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가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